

# 봄 끝에 피어나는 남도의 오색찬란 풍경



문화 브리핑

홍정남 작가 15번째 개인전

오는 22일까지 무등갤러리

자연이 주는 평온함 선사

“그림은 감정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은 그림을 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5년여 만에 무등갤러리에서 15번째 개인전 ‘홍정남전-산과 들 바다 그리고 자연’을 개막한 소현 홍정남 작가(73)의 소감이다.

홍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 풍경을 담은 수묵채색화 5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홍 작가가 5년여간 작업한 100점 중 엄선한 작품이다. 홍 작가에게 이번 개인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5년 만에 전시를 열었다는 점과 지난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며 준비한 전시이기 때문이다.

홍 작가는 “코로나19로 전시를 열 공간을 찾기 쉽지 않아 오랜 시간 동안 그림만 그려오다 작품을 공개하게 돼 기쁘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다”며 “어머니는 매회 개인전을 열 때마다 전시를 잘 열었는지 묻곤 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과 어머니를 닮은 자연 풍경을 골라 전시를 준비했다. 개까날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 준비한 전시장



홍정남 작가가 자신의 작품 ‘봄의 속삭임’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홍 작가의 개인전은 22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곳곳에는 홍 작가와 그녀의 어머니가 좋아하는 자연 풍경으로 가득했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 풍경이다. 홍 작가 상상 속의 모습이 아닌 실제 광주와 전남의 풍경이다. 작가는 현장에서 스케치해 수묵화용 종이인 이합지에 풍경을 옮긴다. 대작은 1년 이상 소요된다. 먹으로 기본 그림을 그린 뒤 수묵화 안료 가루인 분채를 입히면 한국적이면서도 오색찬란한 수묵채색화가 완성된다.

홍 작가는 “수묵담채는 먹으로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혀야만 균형이 잡힌다. 그림의 깊이감을 주기 위해 분채를 사용해 색을 입혔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색을 입히는 수묵채색이 좋다. 화풍과 색상도 기존보다 부드러워졌다”고

설명했다.

홍 작가의 작품 속 장소를 알고 보면 더 흥미롭다. 여수와 해남의 바다, 영암 월출산과 광주 무등산, 여수 영취산, 구례 지리산과 산수유 마을 등 익숙한 풍경들 속에 피어난 꽃과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 바위 사이사이 물든 단풍의 풍경은 복잡하고 조급한 마음에 여유를 던져 준다.

작품 속에서 유독 동백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작가의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다. 광양 동백나무 숲에서 포착한 대작 ‘봄의 속삭임’이 대표적이다.

홍 작가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 동백이다. 어머니는 꽃과 같았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가져다줬다. 어머니의 미소는 어두운 날조차 밝게 했다. 지금에서 돌아켜보면 행복과 궁정을

퍼뜨리는 따뜻한 풀꽃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작가 개인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전시를 준비했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관람객들의 심신에 활기와 위안을 던져 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다.

홍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면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통해 일상의 혼돈에서 벗어나 자연만이 줄 수 있는 평온함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계획에 대해 홍 작가는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림 공부를 이어가고 싶다”며 “꾸준하게 노력해서 더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전시는 22일까지.

/글·사진=이나라 기자

## 조성진 신보 빌보드 클래식차트 정상

피아니스트 조성진(29)의 신보 ‘헨델 프로젝트’ (The Handel Project)가 미국 빌보드 클래식 주간차트 정상에 올랐다.

빌보드에 따르면 조성진이 최근 발매한 앨범 ‘헨델 프로젝트’가 빌보드의 정통 클래식 앨범 차트인 ‘트래디셔널 클래식 앨범’ 부문 1위에 올랐다. 조성진이 지난달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인 도이치그라모폰(DG)에서 발매한 이 음반은 그의 여섯 번째 정규앨범이다.

고전 시대와 낭만주의 음악을 주로 다룬 전작들과 달리 이번 앨범에서 조성진은 바흐와 함께 바로크 시대의 양대 음악가로 꼽히는 헨델의 작품들을 택했다. 1720년 런던에서 처음 출판된 헨델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2권 중에서 조성진이 가장 아끼는 세 곡을 수록했다.



조성진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태어나서 가장 많이 연습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성진은 첫 방송 예능에도 도전한다. 그는 유재석, 조세호가 진행하는 tvN의 인기 예능프로 ‘유 퀴즈 온 더 블럭’ 녹화를 이미 마쳤으며, 이달 중 방송될 예정이다. 조성진은 지난 15일 공개된 예고편에서 “제가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민폐가 될까 봐 예능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남도국악원 ‘진도의 향토민요: 상여소리’ 발간

국립남도국악원은 진도의 향토 민요를 담은 음반 ‘진도의 향토 민요 1: 상여소리’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진도의 향토민요1: 상여소리’ 음반은 2021년부터 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에 보관돼 있던 음악 자료를 정리해 음반으로 발간하는 ‘남도예술아카이빙’ 사업의 첫 결과물이다.

음반에는 진도를 대표하는 양향도, 손판기, 박성울, 박병천 명인의 메기는소리와 함께 군내면, 인지리 주민들의 받는소리 등 옛 진도의 순수하고 구수한 향토민요가 생생하게 담겼다.

해당 곡은 저작권 문제로 자료로만 소장됐지만, 진도 예술인들의 도움에 음반으로 발간할 수 있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최근 진악당에서



‘진도의 향토민요 1: 상여소리’

음반 한정식을 열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강강술래보존회, 덕병거리제보존회, 의신청음마을, 진도다시래기보존회, 진도만가보존회, 진도씻김굿보존회와 순승기 명창의 자제 순승오, 해의만 음악학자의 자제 해성광씨가 참석했으며 이들에게 음반과 함께 감사장을 전했다.

/이나라 기자

## 전남대 피아노교수 음악회

### 27~31일 전남대 예향홀

전남대학교 피아노교수 음악회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전남대 예술대 예향홀에서 열린다. 올해 음악회는 ‘피아노, 수만을 만나다’로 꾸며진다. 전남대 예술대 음악학과 주최로 전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진이 꾸미는 무대다.

27일은 진강우·안소연·김하은씨가 ‘꽃의 곡’, ‘심포닉 에튀드’, ‘크라이슬레리아나’를 들려주며 이후 이수빈·윤수정·신수경(28일), 최현호·송수미·김소영(29일), 이진현·최현아·정민정(30일), 임기욱·조민정·백한울·이철민씨(31일)가 연주한다.

수만은 멘델스존과 함께 독일의 초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이날 무대에서는 ‘나비’, ‘환상소곡집’, ‘판타지’, ‘유모레스크’ 등을 들을 수 있다. 전석 초대이며 문의는 전화(062-530-3030)로 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       |               |
|-------|---------------|
| 광산지사  | 010-3601-1102 |
| 목포(갑) | 010-3272-2765 |
| 목포(을) | 010-3635-6777 |
| 여수지사  | 010-8648-1236 |
| 순천지사  | 010-2547-7890 |
| 나주(갑) | 010-7706-2410 |
| 나주(을) | 010-3713-7458 |
| 담양지사  | 010-8004-9885 |
| 곡성지사  | 010-6764-6100 |
| 구례지사  | 010-6636-3039 |
| 고흥지사  | 010-9151-2828 |
| 화순지사  | 010-3100-0386 |

|      |               |
|------|---------------|
| 장흥지사 | 010-3613-6114 |
| 강진지사 | 010-6646-1241 |
| 해남지사 | 010-8181-2627 |
| 영암지사 | 010-4624-8409 |
| 무안지사 | 010-3621-8989 |
| 함평지사 | 010-3600-0500 |
| 영광지사 | 010-8666-2882 |
| 장성지사 | 010-3666-1300 |
| 완도지사 | 010-5619-7020 |
| 진도지사 | 010-3624-4777 |
| 신안지사 | 010-4627-1472 |
| 보성지사 | 010-5259-6441 |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